박도영

나에게 디자인은 제품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 형태와 소재 그리고 기술은 시대성을 넘어 사용된다.

목표는 제품의 용도만을 바탕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디자이너로서 작을 수 있어도 새로운 가지를 만들 것이다.  
  
In my definition, design is a process of exploring various ways to realize the purpose.

Throughout the process, form, material, and technology are used beyond the era.

The goal is to break stereotypes and present standards based solely on the essence.

In my role as a designer, I will open up new path.